

2021. 1. 21

삼성전자 005930

인텔 파운드리 수주 계약 체결 보도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02. 6454-4862
sunwoo.kim@meritz.co.kr

RA 홍석현
02. 6454-4880
seokhyun.hong@meritz.co.kr

SemiAccurate, 인텔의 삼성 오스틴 파운드리 계약 체결 보도

IT시장 조사업체 SemiAccurate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삼성전자와 반도체 외주생산 (파운드리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음 (참고: [Link](https://bit.ly/3p4gho0) <https://bit.ly/3p4gho0>). 아직 업체측의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해당 조사 업체는 그간 산업 뉴스에 높은 신뢰도를 보여왔음

이는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의 생산전략이 '자체 제작'에서 '외주생산'으로 변화하며 경영진 교체가 발생한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소식임. 최근 TSMC는 실적발표회를 통해 2021년 설비투자액을 크게 상향조정했으며,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를 기저에 둔 투자계획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음

한편 금일 발간된 SemiAccurate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팹을 활용해 2H21부터 15k/월의 위탁생산을 시작할 계획임. 해당 팹이 14n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당사는 양사간의 협력은 'CPU'보다는 'GPU 및 칩셋' 생산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이후 오스틴팹 2공장 증설을 통해 5nm 이상 선단공정에서의 고부가제품 양산이 시작될 수 있음

삼성전자 오스틴팹 외주 계약이 사실이라면 인텔 입장에서는 TSMC의 독점 계약 보다는 삼성전자와의 듀얼 벤더 활용방안이 주는 장점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음. 이는, 1) TSMC의 애리조나 팹이 2023년이나 준비되는 만큼 2021-2022년 공백기의 미국 본토 협력사가 필요 했다는 점, 2) 다중 위탁생산에서 오는 경쟁적 가격협상력 획득, 3) EUV 활용 단계 이후 TSMC와 삼성전자의 수율 및 생산력 격차 불확실성을 감안한 공동 사용 결정으로 판단됨

인텔은 오늘 밤 (미국 시간 1월 21일 오후 2시 PT) 4Q20 실적발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본 행사를 통해 향후의 반도체 생산 전략 및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리라 예상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